

'디카(디지털 카메라)의 유행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 전시할 공간 등의 문제로 프로에게만 가능했던 '사진찍기'를 일반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휴대전화와 함께 디카를 휴대한 수백만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세상을 바꾼다.

# DIGITAL CAMERA (5)

글 : KESA 강중구 주임

내가 원하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피사체)에 따라 그 촬영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그 환경에 따라서도 촬영법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난달에 언급된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따른 촬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밤 거리에 가로등을 별로 만들자.

밤거리를 거닐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장의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은 때가 있다. 혹은 한강다리의 불빛이 너무 고와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때가 있다.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야경을 담기위해서 는 삼각대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밤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속의 셔터스피드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흔들리기가 쉽다. 그래서 카메라를 잡아줄 삼각대가 필요하다. 또한 릴리즈라는 장비도 있으면 편리한데, 릴리즈는 내가 원하는 시간동안 셔터를 개방해 둘 수가 있고 카메라 바디에 떨어져서 셔터를 조작하기 때문에 셔터를 누르면서 생기는 떨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찍고자 하는 장소에 가서 삼각대를 설치하자. 그리고 나서 삼각대에 카메라 바디를 고정시키고 내가 찍고자하는 화면을 담으면 된다. 카메라 설정은 조리개와 셔터의 값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는 M모드가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조리개의 값은 크게, 다시 말해 조리개를 조이고 셔터 스피드는 4초에서 8초, 그이상이 지원 된다면 더 느리게 설정을 한다. 이제 릴리즈로 셔터를 누르면 된다. 결과물이 어떤지 확인 을 하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면 된다.

디지털의 장점이 아닐까 바로 확인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렐리지가 없다면 바디의 떨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셀프타이머를 설정해 두면 손을 건들지 않고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면 아마 불빛이 별 모양처럼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별 모양이 생기는 이유는 빛이 조리개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조리개라는 녀석이 완전히 동그란 것이 아니고 각이 져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진들은 예시 사진들이다.



## ▶ 밤에만 찍을 수 있는 빛의 흔적들.

밤에만 담을 수 있는 풍경들이 있다. 바로 달이다. 물론 달을 찍기 위해서는 웬만한 망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찍기 힘들지만 요즘 카메라들의 높은 화소수로 커버해보자.

일단 카메라의 해상도를 최고치로 설정을 하고 최대한 망원으로 해서 셔터스피드를 2초에서 4초정도로 설정을 하자. 너무 길어지면 달의 궤적이 생기기 때문에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없다. 적당한 셔터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높은 해상도로 찍는 이유는 사진을 리사이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100% 크롭을 하면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달을 얻을 수 있다.

노출시간이 길게 촬영이 가능하다면 달이나 별의 궤적도 그릴 수 있다. 야경을 찍으면서 카메라와 같은 빛의 궤적이나 카메라 바디를 움직임으로써 여러 빛깔의 궤적을,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촬영도 가능하다.



● 셔터스피드의 조절로 빛의 흐름을 찍은 사진들